

懸賞當選詩

其二

어머니시여!

朴芽枝

어머니시여!

어린애기에게 가르치소서

어린애기로 하여야 공정한 길을 더

나게 하소서

어린애기의 영혼은 어머니의

큰 마음을 기다리기 에 피곤하였

었스며

어린애기의 눈은 어머니의 눈

차른지 오래였습니다

아시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가르치

소서 사람이 되려하는 마암의

씨를 가뒀사오니

어린애기로 하여야 공 사람의 눈
을 뜨게 하소서

어린애기를 보실 때와 같은 인

자 하심을 가르치소서

어린애기로 하여야 공 우리의 모

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하옵소서

그러하여 우리의 사람으로 하

여 공인 자하게 하옵소서

X X

어머니시여!

어린애기는 우심을 차른지 오

래였습니다

어린애기에게 우심을 보여 주

십시오 다 사한 그 우심을 배우

게 하소서

어린애기로 하여야 공 어머니가

조와 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게

하소서

어린애기의 生命을 새롭게 할
노래를 부르게 하소서
그러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의
生命을 새롭게 하소서

우리 근아이

金時容

가시덤불우를

다름박질하는

우리는 아이

가시에 쫓려 어

피가 흘러 쓰다쳐도

상관안하고

밤은 불을 차즈러

깜깜한가시덤불을

해매는

우리 근아이